

우육일일시장뉴스 (2026.10.22)

(주)로드프리미엄 | 대상: 중국 / 일본 / 미국 / 호주 / 뉴질랜드 / 남미(브라질·우루과이·파라과이·아르헨티나)

오늘의 핵심

- 1. 미국 Choice 컷아웃은 10/21 US\$372.59/cwt(-0.71), Select는 355.34달러(-6.20)로 하루 만에 다시 내렸습니다. 반면 선물은 강세를 이어 12월물 생우가 231.05달러(+0.87), 11월물 비육우가 348.95달러(+2.65)로 마감했습니다.
- 2. 10/16 미국 수입우 시장에서 호주·뉴질랜드산 90CL 카우는 FOB US\$335~340/cwt, 95CL 불은 350~364달러로 대체로 소폭 내렸습니다. 국내 가격 약세와 수요 부진이 이유입니다.
- 3. 브라질의 10월 첫 7영업일 소고기 수출은 하루 평균 8,760톤으로 전년보다 39.9% 줄었지만, 톤당 단가는 US\$6,163으로 11.3% 올랐습니다. 중국의 55% 추가관세가 본격 반영되고 있습니다.
- 4. 중국 소고기 도매가는 10/21 72.81위안/kg으로 1.0% 내렸고, 브라질 비육우(Cepea)는 10/20 R\$380.45로 보험권이지만 파라나주에서는 R\$385 거래가 나왔습니다. 한국 9월 한우 생산자물가는 전년보다 20.4% 올랐습니다.
- 5. 미국 현물 생우는 10/16 남부 228달러, 북부 생체 222~227달러에 거래돼 전주보다 강했고, 12월물 생우는 주간 1.30달러 올라 8/7 이후 최고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패커 마진은 두당 70.90달러로 하루 새 약 29달러 줄었습니다.

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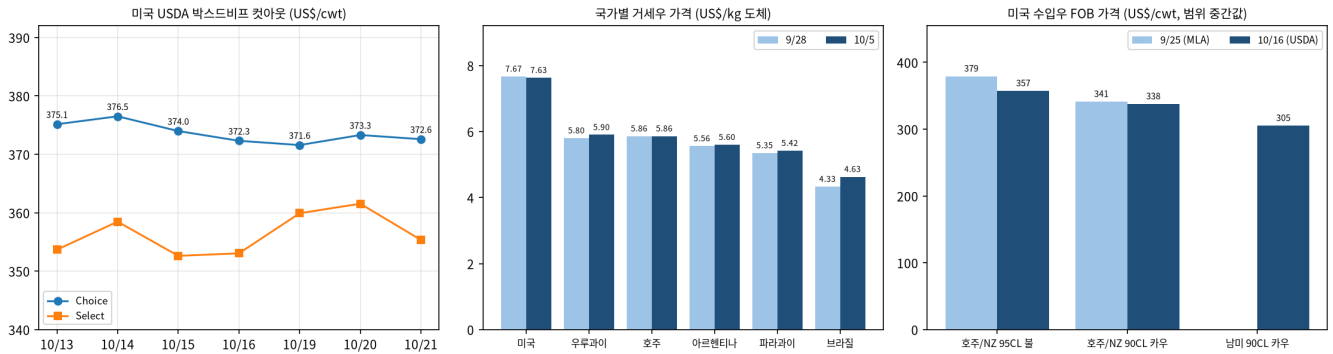
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 아래는 미국 수입우 FOB/CIF, USDA 컷아웃, 산지 경매가, 수출 단가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

국가	지표	최근 가격	변동	출처
미국	USDA Choice 600-900 컷아웃 (10/21)	US\$372.59/cwt	전일 -0.71	USDA AMS
미국	USDA Select 600-900 컷아웃 (10/21)	US\$355.34/cwt	전일 -6.20	USDA AMS
미국	Choice 등심(Rib)/목심(Chuck) 프라이멀 (10/21)	US\$676.84 / 330.65/cwt	10/20 677.12 / 329.55	USDA AMS
미국	CME 12월물 생우 (10/21 종가)	US\$231.05/cwt	+0.87	CK News Today
미국	CME 11월물 비육우 (10/21 종가)	US\$348.95/cwt	+2.65	CK News Today
미국	패커 마진 추정 (10/16)	두당 US\$70.90	전일 99.65, 1주 전 72.55	Agriculture.com(Reuters)
미국	생우 현물 (10/16)	생체 남부 US\$228, 북부 222~227/cwt	전주 대비 강세	Barchart(Yahoo Finance)
미국	Fed Cattle Exchange 경매 (10/16)	US\$228~228.50/cwt	2,596두 중 571두 낙찰	Barchart(Yahoo Finance)
미국	CME 비육우 지수 (10/15)	US\$343.54/cwt	+0.90	Barchart(Yahoo Finance)
미국	USDA ERS 4분기 비육 거세우 가격 전망 (10/16)	US\$225/cwt	2026년 평균 237.56	USDA ERS
중국	소고기 도매 평균 (10/21)	72.81 CNY/kg	전일 -1.0%	농업농촌부
중국	소고기 도매 주간 평균 (10/9~15)	72.62 CNY/kg	전주 -0.3%, 전년 +10.0%	Foodmate(농업농촌부 주간)

국가	지표	최근 가격	변동	출처
호주/NZ	미국 수입 90CL 카우 FOB (10/16)	US\$335~340/cwt	10/9 335~339, 대체로 소폭 약세	USDA AMS 수입우 거래
호주/NZ	미국 수입 95CL 볼 FOB (10/16)	US\$350~364/cwt	10/9 355~360	USDA AMS 수입우 거래
호주/NZ	미국 수입 85CL 트림 FOB (10/16)	US\$305~307/cwt	-	USDA AMS 수입우 거래
호주	미국 수입 90CL 카우 CIF (9/25, MLA 최신 공개분)	US\$320~325/cwt	전주 +5, 전년 -13	MLA 주간 리포트
남미	미국 수입 90CL 카우 (10/16)	US\$298~312/cwt	10/9 303~308	USDA AMS 수입우 거래
호주	9월 소고기 수출 (전체 / 한국향)	132,146톤 / 17,927톤	전년 -5% / -16%	Farmonline
호주	2026년 소고기 생산 / 수출 전망 (MLA, 10/15)	300만 톤 이상 / 약 240만 톤	생산 사상 최고	MLA
호주	다윈 수출용 비육 거세우 (10월 중순)	약 450 A¢/kg 생체	일부 460	Beef Central
호주	달비 경매 재입식 경량 거세우 (10/21)	평균 606~607 A¢/kg 생체	+40~60¢	Beef Central
호주	재입식 거세우 지표 (10/16 주간)	548 A¢/kg 생체	+7%	MLA 주간 사항
호주	비육용 암소 지표 (10/16 주간)	467 A¢/kg 생체	+8.5%	MLA 주간 사항
뉴질랜드	P2 스티어 스케줄 북섬 (10/12)	985 NZ¢/kg	4주 전 동일, 1년 전 890	interest.co.nz
뉴질랜드	P2 스티어 스케줄 남섬 (10/12)	971 NZ¢/kg	4주 전 965, 1년 전 883	interest.co.nz
브라질	Cepea 비육우 (10/20)	R\$380.45/아로바	전일 -0.07%, 10월 누적 약 +4.4%	Brasil 61(Cepea)
브라질	대중국 수출용 비육우 (Boi-China, SP) (10/13)	R\$385.00/아로바	일반 대비 +R\$5	Compre Rural
브라질	10월 1~7영업일 소고기 수출 단가	US\$6,163/톤	전년 10월 대비 +11.3%	Notícias Agrícolas(Secex)
브라질	거세우 평균 (10/5)	US\$4.63/kg	+6.9%	World Beef Report
우루과이	거세우 (10/16)	US\$5.80~5.95/kg, 일부 6.00	강세, 암소 5.50~5.65	El Observador
우루과이	소고기 수출 단가 (최근 30일 / 최근 1주)	US\$5,943 / 5,700/톤	6,000달러 안팎에서 안정	El Observador
아르헨티나	거세우 (10/5)	US\$5.60/kg	+0.7%	World Beef Report
파라과이	거세우 (10/5)	US\$5.42/kg	+1.3%	World Beef Report
미국→한국	8월 대한민국 수출 단가 (US\$2.01억 / 19,195톤)	약 US\$10.47/kg	물량 +14%, 금액 +20%	Provisioner(USMEF)

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

우육 국가별 가격 변화



자료: USDA AMS, World Beef Report, MLA, USDA AMS 수입우 거래 (수입우는 FOB 범위 중간값, 남미는 9/25 비교값 없음, 국가별 거세우는 10/5가 최신)

국가별 주요 뉴스

중국

- 10/21 소고기 도매 평균은 72.81위안/kg(-1.0%), 양고기는 67.32위안(-1.5%)으로 함께 내렸습니다. [농업농촌부](#)
- 농업농촌부 주간(10/9~15) 소고기 도매 평균은 72.62위안/kg으로 전주보다 0.3% 내렸지만 전년보다 10.0% 높습니다. [Foodmate\(농업농촌부 주간\)](#)
- USDA는 2026년 세계 소고기 생산이 3% 넘게 줄어 6,02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ogos Press](#)
- 10/16 소고기 도매 평균은 73.61위안/kg으로 0.7% 올라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양고기는 67.82위안(+0.2%)입니다. [NetEase\(농업농촌부\)](#)
- 브라질산은 9/29 연간 쿼터 110만 톤을 채워 10/1부터 55% 추가관세(일반관세 포함 67%)가 붙습니다. 1~8월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은 약 87.3만 톤으로 8% 줄었습니다. ([Datamar News](#))
- 호주산도 6월부터 쿼터 초과분에 55% 관세가 적용돼 9월 대중국 수출이 7,778톤(-62%)에 그쳤습니다. ([Farmonline](#))
- USDA FAS는 2027년 중국 소고기 수입을 365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USDA FAS](#))

일본

- 호주산 9월 대일본 수출은 27,107톤으로 19% 늘었고, 올해 누적 점유율은 16.8%입니다. ([Farmonline](#))
- 미국산 8월 대일본 수출은 금액 1.4억 달러(+2%), 물량 -13%였습니다. ([Oklahoma Farm Report](#))
- 아르헨티나산 소고기의 일본 수출 위생요건이 합의돼, 남미산 경쟁이 커질 전망입니다. ([Buenos Aires Times](#))
- FAS는 2027년 일본 소고기 수입을 70.5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USDA FAS](#))
- 일본에서는 엔저와 미국 가뭄으로 수입 소고기·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닭고기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소고기 소비는 11% 줄고 닭고기는 6% 늘었으며, 육류 소비의 47%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아시아경제](#)

미국

- 미국농민연맹(AFBF)은 정부의 수입 소고기 확대(아르헨티나·브라질 등)가 다짐육 소비자가격을 거의 낮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ndiana Public Radio](#)
- 10/21 Choice 컷아웃은 372.59달러(-0.71), Select는 355.34달러(-6.20)로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등심(Rib)은 676.84달러로 보합, 목심(Chuck)은 330.65달러로 소폭 올랐습니다. 선물은 강세를 이어 12월물 생우 231.05달러(+0.87), 11월물 비육우 348.95달러(+2.65)로 마감했습니다. ([USDA AMS](#), [CK News Today](#))
- 미국 농무부(USDA)는 멕시코산 생우 수입을 더 많은 통관 항구에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 공급 부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Successful Farming](#)

4. USDA ERS는 10/16 전망에서 2026년 소고기 생산을 248억 파운드, 2027년 246.8억 파운드로 줄여 잡았습니다. 소고기 수입은 2026년 63.5억 파운드, 2027년 61.8억 파운드로 내다봤고, 4분기 비육 거세우 가격은 225달러/cwt로 전망했습니다. [USDA ERS](#)
5. 10/16 현물 생우는 남부 228달러, 북부 생체 222~227달러·도체 350~355달러로 전주보다 강했습니다. 12월물 생우는 228.35달러(+1.10)로 8/7 이후 최고였고 주간 1.30달러 올랐습니다. 패커 마진은 두당 70.90달러(전일 99.65)로 줄었습니다. ([Agriculture.com\(Reuters\)](#), [Barchart\(Yahoo Finance\)](#))
6. 지난주 종합 컷아웃은 375.85달러로 1주 전보다 4.16달러 내렸고, 패커 마진은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Meatingplace](#))
7. 한시적 '저가 소고기' TRQ(90일간 30만 톤)는 첫 달 10만 톤 중 37,486톤만 들어와, 실제 추가 수입은 8,054~21,936톤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쿼터의 주요 공급국은 브라질·파라과이입니다. ([Farm Policy News](#))
8. 롤린스 농무장관은 수입 확대가 소비자 가격 부담을 덜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0/13). ([Brownfield](#))
9. 10/16 USDA 수입우 거래에서 호주·뉴질랜드산 90CL 카우는 335~340달러, 95CL 불은 350~364달러, 85CL 트림은 305~307달러였습니다. 거래는 한산했고, 수요 부진과 미국 국내 가격 약세로 대체로 소폭 내렸습니다. 남미산 90CL은 298~312달러입니다. [USDA AMS 수입우 거래](#)

호주

1. 10/21 퀸즐랜드 달비 경매는 비로 출하가 3,280두(-144)로 줄었고, 재입식 경량 거세우가 평균 606~607¢/kg로 40~60¢ 올랐습니다. 최상급 암소는 평균 399¢, 최고 420¢였습니다. [Beef Central](#)
2. 10/19 와가 소 경매는 4,395두(+305)가 나왔고, 재입식업체가 비육장보다 높게 사며 280~330kg 거세우가 530~618¢/kg(+24¢), 340~400kg 비육용 거세우가 522~586¢(+16¢)로 올랐습니다. 반면 트레이드 거세우·암소는 440~515¢로 9~14¢ 내렸습니다. [Beef Central](#)
3. 9월 소고기 수출은 132,146톤으로 전년보다 5% 줄었지만 5년 평균보다 32% 많습니다. 미국향 43,463톤(+4%)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한국향은 6월 정점(32,599톤)보다 약 45% 적은 17,927톤입니다. ([Farmonline](#))
4. 중국의 쿼터 초과 관세를 피하려고 물량을 1월 통관용으로 쌓아 두면서 브리즈번 등 냉동창고가 가득 찼고, 최소 2~3곳의 수출 도축장이 생산일을 잃었습니다. ([Beef Central](#))
5. 10/16 주간 호주 소 지표는 모두 올랐습니다. 재입식 거세우는 548¢/kg(+7%), 비육용 암소는 467¢/kg(+8.5%)이고, 소 출하는 54,403두로 7% 줄었습니다. [MLA 주간 사항](#)
6. 9월 생우 수출은 46,765두로 8월(71,711두)보다 약 35% 줄었지만, 다윈 비육 거세우 가격은 450¢/kg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eef Central](#))
7. 호주 야당 연합과 전국농민연맹(NFF)은 소·양고기의 EU 시장 접근이 너무 적다며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EU 무역협정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round News](#)
8. FAS는 2027년 호주 소고기 생산을 242만 톤, 수출을 224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USDA FAS](#))
9. MLA는 2026년 호주 소고기 생산이 사상 처음 300만 톤을 넘고 수출은 약 24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우 도축은 2026년 960만 두에서 2027년 920만 두로, 사육 두수는 2026년 3,080만 두에서 2027년 3,010만 두로 줄어든 전망입니다. [MLA](#)

뉴질랜드

1. P2 스티어 스케줄은 북섬 985, 남섬 971 NZ¢/kg로 1년 전보다 각각 11%, 10% 높습니다. ([interest.co.nz](#))
2. 미국 수입 시장의 가공용 원료(90CL) 가격 하락은 뉴질랜드산 소고기 수출가에도 부담입니다. ([USDA AMS 수입우 거래](#))

남미 (브라질·우루과이·파라과이·아르헨티나)

1. 10/20 Cepea 비육우 지표는 R\$380.45(-0.07%)로 보합권입니다. 다만 4개 주 일부 지역에서 아로바가 최대 R\$10 올랐고, 파라나주에서는 R\$385에 거래됐습니다. 11월 이후 선물은 R\$400 근처입니다. ([Brasil 61\(Cepea\)](#), [SpaceMoney](#), [FarmNews](#))
2.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추가로 연 10만 톤 쿼터를 이미 모두 채웠습니다. 중국 비중은 줄고 미국·이스라엘향이 늘고 있습니다. ([Ground News](#), [MDZ](#))

3. Safras는 중국의 쿼터가 다시 열리는 11~12월에 대중국 소고기가 최대 40만 톤까지 선적될 수 있어, 정부가 쿼터를 관리하지 않으면 브라질 아로바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2027년 브라질산 쿼터는 112.8만 톤(+2%)입니다. [Canal Rural](#)
4. 브라질 비육우 아로바 가격이 R\$380에 이르러 1994년 해알화 도입 이후 명목 기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출하 가능한 소가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SpaceMoney](#)
5. 우루과이 거세우는 US\$5.80~5.95/kg, 특급 물량은 6.00달러까지 거래됐고 암소는 5.50~5.65달러입니다. 수출 단가는 최근 30일 톤당 5,943달러, 최근 1주 5,700달러로 6,000달러 안팎에서 안정됐습니다. 도축도 전주 3만 4천 두를 넘겨 회복세입니다. ([El Observador](#), [El País Rurales](#))
6. 브라질 소고기 업계는 EU 수출 재개 일정이 아직 없는 가운데, 이달 중 중국 쿼터가 새로 열리면(“쿼터 전환”) 대중국 수출이 다시 늘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 다변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A Gazeta](#)
7. 브라질의 10월 첫 7영업일 소고기 수출은 61,320톤, 하루 평균 8,760톤(-39.9%)이었고, 톤당 단가는 US\$6,163(+11.3%)입니다. 닭고기(+28.1%)와 돼지고기(+20.5%)는 늘었습니다. ([Notícias Agrícolas\(Secex\)](#))
8. 1~8월 브라질의 미국향(24.1만 톤, +37%)·칠레향(10.6만 톤, +32.5%)·러시아향(8.3만 톤, +38%) 증가가 중국향 감소를 메웠습니다. ([Datamar News](#))
9. 파라과이는 도축이 약 20% 줄었지만 수출 가격이 20% 올라 이를 메우고 있습니다. ([La Tribuna](#))

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

- 9월 한우 생산자물가가 전년보다 20.4% 올랐고, 호주산은 7월부터 세이프가드 관세 24%가 붙고 있습니다. 다만 원화 강세가 수입 단가 부담을 덜어 주고 있어, 수입육으로 한우 대체 수요를 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 미국 수입 시장의 가공육 원료(90CL·95CL)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호주·뉴질랜드산 가공육 원료의 한국향 오퍼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호주산 한국향 수출은 세이프가드 관세 24%로 6월 정점보다 45% 줄었습니다. 중국향 물량도 1월 통관을 기다리며 쌓여 있어, 1월 선적·통관분은 공급이 몰려 가격 협상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 미국산 Choice 컷아웃은 372달러대로 보험권이지만 생우·비육우 선물은 연일 올라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도 줄고 있어, 구이용 부위는 큰 폭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분기 말까지 나눠 매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말 현물 생우가 228달러로 강해 다음 주에도 미국산 원가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브라질산은 11~12월 중국 쿼터 재개로 대중국 선적이 최대 40만 톤 몰릴 수 있어 남미산 오퍼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관세로 10월 수출 물량은 40% 가까이 줄었지만 단가는 올랐고, 산지가는 R\$380으로 명목 사상 최고입니다. 우루과이 거세우도 6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남미산 오퍼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우루과이·파라과이산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호주 산지 소 지표가 한 주 새 7~8% 오르고 비로 재입식 수요가 살아나, 호주산 오퍼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수입 원료 가격이 약세일 때 4분기~1분기 물량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요약

미국 컷아웃은 보험이지만 생우·비육우 선물이 연일 오르고 호주 산지 소값과 브라질 아로바도 강해 원가 하락 여지가 작으므로, 가격이 약한 미국 수입 원료(90CL) 시장을 근거로 가공육 오퍼를 협상하고 구이용은 나눠 매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